

‘월봉서원’ ‘여수야행’ 문화재 활용사업 선정

문화재청 내년 사업 277선 발표

광주 ‘달빛걸음’ 2년 연속 선정
원효사·송광사·화엄사 포함
문화 영역 확장·관광 효과 기대

오랫동안 문화재는 옛것 그대로 잘 보존하고 가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문화재는 특정한 공간에 박제돼 있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 동시대인들과 호흡하고 새로운 문화와 교섭됨으로써 문화의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다.

특히 지역문화재를 활용하는 사업은 문화재에 담긴 의미를 개발해 지역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연계한다는 데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2018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문화재야행(夜行)’ 22선, ‘생생문화재’ 130선,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95선,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30선 등 총 277선을 선정했다.

먼저 문화재야행에 광주 동구의 ‘달빛걸음’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선정됐다. 전남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순천의 ‘순천가(順天歌)’와 함께 하는 ‘풍류기행’이 포함됐고, 여수의 ‘여수야행-불멸의 이순신 여수를 품다’는 내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됐다.

생생문화재사업은 문화재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역사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문화콘텐츠로 프로그램형 문화재 관광상품을 지향한다.

광주 광산구에서는 ‘광산, 가옥의 사계 4악장’ 사업에 용아생가(광주기념물 제13호), 김봉호가옥(광주문화재자료 25), 장덕동근대관옥(등록 146)이 선정됐다. 또한 남구에서는 ‘신나는 고씨술놀이로 고(告), 고(誥), 고(告)’ 사업에 고씨술놀이(국가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에 소재한 ‘용아생가’(광주기념물 제13호).

무형제33호), 칠석동은행나무(광주기념물 제10호), 부용정(광주 문화재자료 제13호)가 포함됐다.

또한 동구의 ‘오감만족 풍류산책’에 오지호가(시기념물 제6호), 자운사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제1507호) 등 3종이 선정됐으며 서구는 ‘서창들녘에 부는 바람’에 만귀정(광주문화재자료 제5호), 병천사(광주문화재자료 제11호), 가야금병창이영애(광주무형 제18호)가 포함됐다.

전남의 생생문화재사업은 강진 ‘詩·愛 물든 영랑생가’, 나주 ‘조선의 도시로 가자 정도 천년의 나주, 쪽빛으로 밝힌다’, 곡성 ‘내가 만난 첫 번째 문화재(마천목좌명공신목관), 여수 ‘승리의 바다, 백성의 바다’(진남관), 광양 ‘성(城) 둘 사이에 피

어난 현호색’(마로산성), 담양 “‘있다’-문화재로 세상을 잇다’(소쇄원 등), 해남 ‘명량한 명량 ‘과거에서 미래를 찾다’”, 목포 ‘근대역사 여행(이훈동정원 등), 순천 ‘임진왜란의 역사 통아시아 평화의 시대로’(낙안읍성 등), 보성 ‘근대문화를 찾다’(구보성여관), 화순 ‘지란지교의 숨결! 학포, 정암을 기억하다’(조광조 저려유허비 등), 진도 ‘다무늬가 생생체험마당 “가락의 흥을 실어”(진도북놀이 등)’이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향교와 서원을 이야기로 가득한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광주에서는 월봉서원·무양서원·광주향교 등이 선정됐다. 전남에서는 장성향교·필암서원·고산서원(장성), 곡성·옥과

향교·덕성서원(곡성), 구례향교(구례), 강진향교(강진), 창평향교(담양), 순천향교(순천), 해남향교(해남), 능주향교·화순향교(화순), 여수향교(여수), 영암향교(영암)가 선정됐다.

전통산사활용사업은 인문학적 정신유산과 역사문화재원이 풍부한 전통산사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체험, 공연, 답사 등의 형태로 누리는 산사문화 프로그램이다. 광주는 원효사(원효사, 무등산을 품다!)가 대상에 선정됐으며 전남은 송광사·선암사(조계산, 천년산문을 열다), 화엄사·천은사·연곡사·사성암(화엄사 문화재 ‘잃어버린 조각을 찾다’), 흥국사(‘흥국사찰 흥국사, 여수 흥(興)하다’)가 포함됐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미리 보는 광주시향 유럽투어



피아니스트
고틀리프 왈리쉬

상임지휘자
김홍재

18일 광주문예회관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유럽투어 프리뷰 콘서트’가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창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유럽투어를 떠나는데 앞서 국내 관객들 앞에 미리 선보이는 무대다.

김홍재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4번’을 연주한다.

1978년 지휘자 김홍재가 이끄는 도교향악단의 연주로 일본에서 초연된 ‘아리랑 환상곡’은 우리 민요 ‘아리랑’의 선율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형식의 관현악곡이다. 최성환은 북한 음악가이며 ‘아리랑 환상곡’은 오케스트라의 색채감을 유려한 관현악법으로 실려냈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은 부드럽고 서정성이 짙은 곡이다.

유럽투어 협연자인 피아니스트 고틀리프 왈리쉬가 협연한다.

고틀리프 왈리쉬는 빈 필하모니 관현악단, BBC 교향악단 등과 협연했고 주세페 시노폴리,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와 같은 지휘자들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스톨리안스키 어워드 1등, 킬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자인 그는 2012년 스타인웨이 아티스트로 지명됐다. 현재 베를린 예술대학교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솔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은 광주시향의 유럽행에 다리를 놓아 준 각별한 작품이다. 지난해 창단 40주년 기념으로 떠난 일본 공연의 영성을 접한 브루크너 하우스가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의 재연주를 청하며 공식 초청장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한편 광주시향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유럽투어에 나선다. 22일 프라하의 스테타나홀과 25일 오스트리아 린츠의 부르크너 하우스에서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062-524-5086.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아리아리 국악단’ 19일 무료 공연

제549회 목요 열린 국악 한마당 전 통예수단 ‘아리아리 국악단(사진)’ 초청 공연이 오는 19일 오후 7시 빛고을 국악 전수관에서 열린다.

‘아리아리 풍류 나들이’라는 주제로 공연하는 ‘아리아리국악단(대표 김희동)’은 여러 국악 파트의 전공자들이 구성됐으며 ‘정약’, ‘정가’, ‘무용’, ‘사물놀이’, ‘민속악’, ‘민중음악’, ‘창작음악’, ‘판소리’ 등 다양한 장르의 가무

형태의 음악을 추구한다. 첫 무대는 정가(가곡, 가사, 시조)중 하나인 가곡 중에서 여장 가곡 ‘환계락’으로 꾸며진다. ‘환계락’은 남창 가곡에서 파생한 곡으로 환계락은 계락으로 돌아들어가는 노래라는 뜻이며 우조로 시작한다.

이어 ‘한량무’, 판소리 ‘심청가’ 중 ‘맹인잔치 대목’과 창작곡 ‘새, 어머니의 손, 진달래꽃’, 기악합주 ‘신밧노래’, 민요 ‘동백타령, 내고향 좋은씨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무료 관람. 문의 062-350-4557.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예술이 갈 길...광주시립미술관 강좌

내일 박양우 교수 초청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2017년 광주시립미술관 현대미술강좌 일곱 번째 강사로 박양우(사진) 중앙대학교 교수를 초빙, 한국문화예술 정책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강좌를 개최한다.

17일 오후 3시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 박 교수는 21세기 한국문화예술과 국제사회를 본다’를 주제로 21세기 한국문화예술이 나아가야 할 문화정책 전반과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정책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광주의



문화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중앙대학교 법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영국 The City University London 예술경영학 석사를 거쳐 한양대 대학원 관광학 박사를 받은 박교수는 문화관광부 차관,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를 역임한 문화예술 경영의 전문가이자 행정전문가다.

문의 062-613-71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장애인 문예지 전통 잇는다...‘숫대평론’ 창간

문예지 ‘숫대평론’(사진)이 창간됐다. 재경년에 제작된 겨울 100호를 끝으로 폐간한 ‘숫대문학’의 전통을 잇는 장애인문학 전문지다.

계간 숫대문학은 1991년 창간 이후 100호까지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나오면서 신진·중견 장애인 문인의 글터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상시적 재경년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여파로 우수 문예지 지원사업에서 탈락하며 문을 닫았다.

숫대평론은 25년간 숫대문학을 만들어 온 방희의 한국장애예술인협회장이 다시 발행인을 맡았다.



숫대문학 재창간 대신 평론 중심의 새 문예지를 만든 건 장애인문학이 한국문학에서 한 자리를 담당하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숫대평론 창간호에는 문학평론가 김중화·허혜정·이형권·고봉준 등이 장애인문학의 의미와 방향을 진단하는 평론을 실었다. 평론가 오형엽·김진희·이재복·김용희 등은 개별 작품을 냈다. /연향뉴스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방치된 묘지 70%(추정)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본 자연장은 이릉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화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